

## 조도다이라의 늪

조도다이라의 트레킹 코스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꽃을 피우는 아고산대 식물로 둘러싸인 늪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 지하수와 빗물이 쌓여 생긴 늪도 있고, 높은 투명도와 선명한 청색을 자랑하는 늪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으며, 모두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도보(10분~2시간)로 갈 수 있습니다.

### 가마누마 늪

봄, 여름, 가을에는 가마누마 늪(해발 1,760m)의 들꽃에 이끌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8월부터 9월에 걸쳐서는 가는 줄기 끝에 작은 별처럼 생긴 꽃을 피우는 회귀 원생 곡정초(*Eriocaulon takae*)를 볼 수 있습니다. 6월에는 분홍색의 이와카가미(암매과의 상록 다년초)와 8월부터 9월에는 보라색의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꽃이 활짝 핀다. 가마누마 늪의 서쪽과 남쪽 가장자리는 잎이 많은 소매해초(*Veratrum stamineum var. gladrum*) 군락이 덮고 있는데, 수 년에 한 번씩 6월부터 7월에 걸쳐 흰 꽃을 피웁니다.

가마누마는 만곡된 연못 모양이 낮(일본어로 가마는 낮, 누마는 늪을 의미한다)을 닮았다 하여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직경은 약 1,000m, 깊이는 6m이며, 스가다이라 습원과 우바가하라 습원에 인접해 있고 북쪽에는 잇사이쿄산이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는 5km 정도 걸으면 갈 수 있습니다(왕복 약 2시간).

### 고시키누마 늪(마녀의 눈동자)

화구호인 고시키누마 늪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섯 가지 색의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녀의 눈동자'라는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짙은 파란색부터 에메랄드 빛으로 테두리를 두른 인상적인 사파이어 색까지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약 1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잇사이쿄산(해발 1,949m) 산 정상에서는 고산성 관목이나 침엽수에 둘러싸인 고시키누마 늪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분 정도 더 걸으면 고시키누마 늪이 내려다보이는 화구벽 능선에 도착합니다. 고시키누마 늪은 직경 약 300m, 깊이 9m 정도입니다.

### 오케누마 늪

오케누마 늪(해발 1,595m)은 오래된 성층화산의 화구에 있는 늪으로, 울창한 낙엽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직경 약 150m, 깊이 13m 정도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짙은 감색의 물이 주위의 녹색과 훌륭한 대비를 이루고,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7월에는 오케누마 늪으로 이어지는 산책코스를 따라 이 땅의 희귀한 고유종인 연분홍색 홍만병초가 군생하여 꽃을 피웁니다. 조도다이라 비지터 센터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분 정도 더 가면 캠핑장과 산장이 있는 우사기다이라에 도착합니다.